

손실대책수립을 위한 건의

1. 국내 油價 안정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업계는 불확실한 국제 석유정세하에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당 업계는 석유협업 제16호('90. 1. 12)로 이미 건의드린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연말의 급격한 원화평가절하등으로 인하여 약 600억원의 손실요인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아직 이 손실요인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금년들어서도 세계 石油수요증대와 더불어 국제원유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換率도 이미 690원선을 돌파하여 막대한 환차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 원가결정의 중요요소인 원유대 및 환율수준이 귀부가 석유사업 기금 징수액산정시 적용하는 추정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바, 금년 1~2월의 경우 약 320억원의 추가손실 요인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오는 3월부터 시장 평균 환율제도가 시행될 경우, 원화의 절하속도가 가속 및 급격한 환율 변동이 예상되어 당 업계의 손실요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5. 현 정유산업에 대한 허용이익규모가 작고 또한 정유업계의 경영개선노력으로 인한 수익개선분 및 비용절감분까지도 油價로 환수되고 있음에 따라 정유산업의 발전 및 경영합리화에 큰 제약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상기와 같은 손실요인이 누적될 경우, 당 업계는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한 시설 고도화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따라서 '90년도 油價관리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기 손실요인을 즉각 보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換率 상승에 따른 부담해소를 위하여 油價반영 환율을 예측치로 현실화하여 주시고, 현재 油價에 반영되고 있지않은 유전스환차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油價 관리방식을 객관화하여 판매수익, 換率, 정제비 등 모든 이익 및 손실요인이 발생 즉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끝으로, 당 업계는 앞으로도 국내석유제품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1990년 2월 24일

대한석유협회